웹카드로 봉축 기쁨 함께해요

인터넷으로 상대방에 전달 많은 사람과 공유
플래시 애니메이션, 찬불가 등 꾸준한 인기

많은 불자들이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연하장 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부처님 오신날에는 왜 봉축 카드를 보내지 않을까 아쉬워했던 정민호(충남 부여 거주 · 31)씨. 그는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항상 가족, 이웃, 도반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봉축 웹카드를 보낸다. 돈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봉축의 기쁨을 나누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계 홈페이지 또는 웹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봉축 캐릭터, 단청문양, 부처님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불교 소재의 봉축 카드를 선보여 네티즌 불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플래시 기술을 응용한 짧은 애니메이션과 찬불가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플래시 카드는 봉축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소년 불자를 중심으로 비불자 청소년들에게까지 꾸준히 보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본지가 운영하는 부다피아(buddhapia.com)에서는 '부다피아 카드나라' 코너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연꽃일러스트, 동자카드, 법당 단청이미지 모음,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법구모음 등 총 10개종 60개의 웹카드를 서비스 하고 있다. 방문자수를 체크하는 각종 랭킹사이드에서 불교부분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다피아는 사진이나 기타 전통적인 불교소재가 아닌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웹카드를 선보이고 있어 네트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bulkwang.org)도 월간불광 인터넷카드 코너에서도 15종 184장에 이르는 다양한 봉축 웹 카드를 보낼 수 있다. 고려시대 불화카드, 금속공예품 카드, 일장스님 그림카드, 어린이들이 그린 부처님 그림카드 등 주로 사진 위주의 카드가 중심이지만 찬불가를 첨부할 수 있고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아 불자들이 즐겨 찾고 있다.

무료카드 서비스업체인 샌드투유(send2u.co.kr)에서 제공되는 웹카드는 모두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플래시카드. '어두운 세상, 자비의 손을' 등 총 15개의 불교관련 플래시카드는 저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한나무(hannamu.com), 불교정보센터(budgate.net), 성철넷(songchol.net) 등 불교계 홈페이지와 카드코리아(cardkorea.com), 레또(lettee.com), 포스트넛(postnut.com)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불교소재 웹카드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붓다 뉴스' 세계가 본다

일일 방문자 30% 이상이 해외서 접속

일간 불교뉴스(buddhanews.com) 사이트 붓다뉴스가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본지가 국내 유수의 사이트 분석 전문 업체인 로거사(logger.co.kr)에 의뢰해 방문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로그 분석을 해본 결과 일일 방문자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4월 9일 하루동안 붓다뉴스를 방문한 접속자 IP는 한국 55.94%, 영국 32.67%, 미국 2.48%, 인도 0.99%, 독일과 캐나다가 각각 0.5%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일주일간을 분석해 본 결과도 한국 72.21%, 미국 12.47%, 독일 2.03%, 영국 1.17%, 호주 0.82%, 중국 0.76% 기타 싱카포르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붓다뉴스는 한글 서비스 중심이지만 해외에서의 접속률이 30%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불교 소식을 궁금해 하는 해외 교민 불자들에게 붓다뉴스가 주요 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티베트 여성회 친구 (http://www.fotwa.org)

'회화클럽' '후원자 기부' 등 메뉴 개설
중국 티베트 점령 항거 위해 결성

티베트 여성회 친구(http://www.fotwa.org/index.html)는 각지로 추방된 티벳인들을 돕고 피난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단체이다. 티베트 여성회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티벳어린이들의 회화클럽' '티벳인과 미국청년의 예술과 생각' '사진 수필' '티베트 여성회 친구의 임무와 정보' '후원자와 기부' 등의 메뉴가 개설되어 있다.

여성회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 · 지회를 두고 있다.

게시판 엿보기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방송을 듣는데 기독교인이 단군문화유적을 훼손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이것은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남의 문화재를 훼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TV에서 틱낫한 스님의 강연을 방송하더군요. 거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아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3차원 세상인 현상세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kim, 피안으로 가는 문

스님의 얼굴이 그리운 것은 아마도 부처님이 그리운 거겠죠. 병원에 오셔서 병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낫게 하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그대로 전 이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불교도 교회처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마음속엔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유현 광덕스님홈 방명록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진각종 밀각 심인당 (www.milgak.or.kr)

1947년 회당 대종사가 이 땅의 풍토성과 혈지성에 맞는 전통 종교인 불교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도록 새롭게 창종한 밀교종단 진각종.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한 밀각 심인당은 진각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1952년 설립되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현대 정보사회에 발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포교에 앞장서고 있어서다. 진각종은 사찰을 자기속에 내재하고 있는 심인을 자각하고 밝힌다는 의미에서 심인당이라고 부른다.

1999년 개설한 밀각 심인당 홈페이지(www.milgak.or.kr)는 당시 많은 불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3년전만 해도 하드웨어 등 정보 기반이 지금처럼 잘 갖추어지지 않아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이 어려웠으나 밀각 심인당은 네티즌 불자들을 위해 주교 회정 정사의 법문을 캠코더로 녹화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했기 때문. 많은 네티즌 불자들이 동영상 법문을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인기를 누렸다. 또한 당시만 해도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로 없어 불교, 특히 밀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불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 자유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을 하는 등 사이버 법당의 역할도 수행했다.

법문 서비스 통해 밀교 궁금증 해소
다도, 신앙 · 인생상담 코너 마련 예정

◇밀각 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가 사이버상에서 불교복지정보를 찾고 있다.

하지만 신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0~50대 보살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고 전산 담당 종무원이 퇴사해 그동안 홈페이지가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장년층에까지 컴퓨터 사용자가 늘자 신도카드(교도명부)에 E-mail을 기재하게 해 심인당 행사, 신도들의 생일, 기타 공지사항 등을 일반 엽서와 함께 E-mail을 소지한 신도들에게는 메일로 공지하고 있다. 메일을 받은 신도들은 심인당에 더 자주 나오고 활동도 열심이라고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정사는 전한다. 더불어 홈페이지도 심인당과 신도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올 6월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될 홈페이지에는 진각종 소개, 동영상 법문을 비롯해 현재 심인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각다도 교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 하고 익명으로 신도들이 신앙 및 인생상담을 할수 있는 코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 담당 종무원도 채용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제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 화성 신흥사 주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축제의 날.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서해바다 갯벌탐사 및 사찰체험 가족캠프에 참가해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 보세요.

참가방법: 하나, 5월 5일 그림그리기 대회 당일 행사 참가
둘, 5월 4일~5일 가족캠프 참가 후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셋, 작품(우편) 공모 참가

참가부문: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
수채화 부문 – 초등 3,4학년
만화 부문 – 초등 5,6학년

일 시: 2003년 5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화성 신흥사
대 상: 전국의 어린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1~6학년)
참 가 비: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 4,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15,000원 (가족캠프 참가자, 1박 3식 제공, 단체 자체차량 이용시 12,000원)
무료(복지시설, 재활원 등 단체 참가어린이, 시설 자체 차량이용)
준 비 물: 도시락, 화판, 참가부문 미술도구(크레파스, 물감, 조각도), 돗자리, 모자착용
특 전: 참가자 전원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
시 상: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각 학년별 으뜸상 (7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7명, 상장 및 부상)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올해의 놀이마당 "우리 가족 레포츠를 즐겨요!"
골프, 암벽등반, 볼링, 농구, 다트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책 12선' 중 한권을 드립니다.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 선정, 가교, 대원사, 동쪽나라, 문학동네, 북 뱅크, 북앤피플, 운주사, 풀빛, 한림출판사, 행복한 세상, 현암사, 황금가지 협찬)

www.bulkwang.org/grim.html

참가신청 및 문의: 월간「불광」02) 420-3200 목아박물관 031) 885-9952~4 신흥사 031) 357-2695 선재이벤트 0302) 317-2555

후원: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회, 신흥인쇄, 불교방송, 대한불교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금강」, 월간「불교」 협찬: 로데월드, 칠곡이 우리옷(주), 생활한복 황야, 가위바위보기방, 패밀유업 '연요', 다우데이터시스템, 금강어패럴, 대림지유통, 광일문화사, 신우, 건지불교